

시적 기능의 세번째 축, 차유(差喻) 론*

신 진**

차 례

- | | |
|--------------|--------------------|
| I. 서론 | III. 차유(transphor) |
| II. 시적 기능 비판 | IV. 결론 |

I. 서 론

시적 언술을 조직하고 있는 개개의 단어와 그 단어로 결합된 구문, 그리고 그 구문과 상황적 맥락의 집합으로 유기적 조직을 이루고 있는 시적 언술 체계, 그것을 관통하는 원리는 무엇일까?

인간의 모든 언술 행위의 원리가 되는 동시에 시를 시답게 하는, 시적 언술의 특질을 형성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대답으로 은유와 환유를 드는데 별로 주저하지 않는 것이 최근 우리 국어국문학계의 대체적인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적 언어는 비유적이고, 내포적(connotation)이며, 음악적이고, 간결한 표현 그리고 유기적(organic) 통일성 등을 그 언어적 특성이라 하면서 수십 가지 수사법, 비유법을 나열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간소

* 이 논문은 1999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지원재단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 동아대 국문과 교수

화된 느낌이 없지 않다.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이래 모든 언어 작용의 원리로 인정되어온 계열적(paradigmatic)관계와 통합적(syntagmatic) 관계를 1950년대 후반에 선택과 결합이라는 언술 성립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그 두 과정에서 형성되는 시적 언술을 각각 유사성에 의한 은유와 인접성에 의한 환유로 구명한 야콥슨의 논문이 1980년경부터 우리나라에 본격 소개되고 시학과 인지언어학의 소중한 논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일어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90년경부터는 정신분석학자 라캉(Jaques Lacan), 인지언어학자 레이콥(George Lakoff)을 위시한 은유, 환유론이 우리나라 전 문화영역에 논의의 조용한 붐을 조성했다.¹⁾

그래도 은유와 환유라는 양극론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역시 야콥슨부터이고 야콥슨은 그 양극론의 국제적인 진도사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야콥슨은 언어행위의 여섯 가지 요소 중 메시지가 메시지 그 자체를 지향하고 그 자체에 초점을 둘 때 시적 기능(poetic function)이 생성된다고 한다. 이는 물론 시의 영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언어활동에서도 부수적 현상으로 나타난다.²⁾

메시지를 이루는 언어활동은 선택(selection)과 결합(combination)이라는 두 개의 원리에서 추구된다. 선택과 결합에 의해 말의 연쇄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언어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때 선택은 등가성과 유사성(類相似性), 차이성과 유의성(類義性), 그리고 반의성(反義性)을 기초로 이루어지며, 선택된 말의 결합은 인접성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메시지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시적 기능은 등가의 원리를 선택의 축에서 결합의 축으로 투영한다.³⁾ 선택과 결합은 랑그의 체계 안에서는 제한을 받지마는 파롤의 차원에서는 무한히 열려 있다. 파롤의 차원에서 생성되는 언어의 심미적 기능, 시적 기능은 선택과

1) 야콥슨, 라캉, 레이콥의 논문, 저서가 많이 번역 또는 소개되었고, 유관 논문은 자주 보인다. 필자가 손쉽게 구한 『은유와 환유』란 동일 책명의 도서만 해도 정원용(신지서원,1996.11), 한국기호학회 편(문학과 지성사, 1999.7), 김옥동(민음사,1999.9) 등 3권이다.

2) Roman Jacobsdn, eds. Krystina Pomorska and Stephen Rudy 『Language in Litera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p,69-70.

3) Ibid. p,71.

결합이라는 두 원리의 무한한 창조적 영역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의 연술은 의미론적으로 두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하나의 화제가 그와 유사한 다른 화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와 인접한 다른 화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은유적 방식, 후자를 환유적 방식이라 부를 수 있다. 그 두 방식은 각각 은유와 환유에서 가장 응축된 양태를 보이기 때문이다.⁴⁾

이렇게 볼 때 은유와 환유, 양극론은 그간의 수많은 수사학 상 비유법의 언어적인 원리를 간략히 구명한다는 점, 은유에 비해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환유를 은유와 대등한 위치로 격상시킨 점, 그리고 은유와 환유를 단순히 문학작품의 수사적 장치에 국한시키지 않고 인간의 전반적인 인지작용의 관점에서 파악한 점은 주목받을 만하다.

그러나 은유, 환유 양극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공론화된 불만은 시적 연술을 언어과학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오히려 시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일 수 있다는 점, 시적 연술의 원리를 둘로 단순화한 결과, 복합적인 원인으로 복잡하게 얽히기 마련인 시적 연술과 인간의 인지작용을 양극론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그 해명에 오히려 부적합한, 있으나 마나한 성긴 그물이 아닌가하는 데 있는 것 같다.⁵⁾ 제유를 포함 은유, 환유, 제유 등 셋을 시적 연술의 주도적 양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제유가 환유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 외 환유의 가치가 크게 재고되었듯 다시금 재고되어야 할 원리는 없을까?

양극론의 문제점의 핵심은 이른바 아이러니나 역설(paradox)과 같은 연술을 대할 때, 그 두 축으로는 실제적인 해명이 불가능한 데 있고, 이를 보완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 논리에 따르면 우리의 연술 가운데 은유나 환유의 방식이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경

4) Ibid. p, 109.

5) 이러한 비판은 적지 않다. Riffaterre, Mounin, Culler 등, 야콥슨의 선집, III, pp.765-89. 그리고, Gerard Genette, 『줄어드는 수사학』 김현 편, 『수사학』(문학과 지성사, 1985), Seto ken-ichi 정원용, 『은유와 환유』, pp. 155-170. 김옥동, 『은유와 환유의 언어학적 기초』, 한국기호학회 엮음, 『은유와 환유』(문학과 지성사, 1999), p.115. 등. 이 외에도 술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우도 적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언어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내적 언어 체계 외 실제의 예술, 그 상황적 맥락의 의의는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혐의는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훌륭한 시란 아이러니를 유지하는 시, 곧 포괄의 시(inclusive poetry)요, 그것은 여러 이질적인 층동들이 상호반응하면서 균형을 이룬 체계⁶⁾라는 리처즈의 논리에 공감하면서 일반화되다시피 한, 야콥슨의 시적 기능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은유, 환유 외 넓은 의미의 아이러니까지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적 전략의 원리를 제시하여 시적 기능의 양극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마땅히 있어야 한다 하겠다. 이는 양극적 태도가 내재한 관념성의 한계를 넘어 구체적 예술의 해석원리를 찾는 작업이요, 시적 예술 해석상의 단순화에 따르는 한계를 가급적 좁혀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II. 시적 기능 비판

1. 언어주의의 한계

예술(discourse)의 생산과 수용은 예로부터 두 개의 분리된 학문, 수사학과 해석학을 낳았다. 야콥슨의 시적 기능은 이 중 생산적 측면, 수사학에 모아져 있다.

수사학은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발달하여 말을 아름답게 꾸미는 변론술, 퀘변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 동양에서는 시문(詩文)의 작법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기법의 연구라는 의미로 통용되게 되었고 특히 리처즈(I. A. Richards)를 중심으로 하는 신비평가들은 수사의 가치를 재발견, 수사를 현대 언어와 문학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다.⁷⁾

6) 이에 비해 상반성이 부재하는 시, 즉 이질적인 층동들을 배제하는, 배타적이고 단선적인 시는 배제의 시(exclusive poetry)라 했다.

I. A. Richards,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London:Routledge and Kegan Paul, 1970),pp,249-251 참고.

야콥슨은 이 수사학적 전통을 언어과학으로 체계화 했다. 그는 언어 생성의 원리이자 시적 기능의 두 축으로 은유와 환유를 들고 20세기 인문학의 특징이 그러하듯 엄밀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과학을 수립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형식주의자요, 프라그마학파로서의 언어주의적 입장에서.

야콥슨이 '언어학과 시학'이란 논문에서 시적 기능의 두 축으로 제시한 은유, 환유 이론은 그보다 두어해 전에 발표된 '언어의 두 양상과 실어증의 두 유형'이란 논문에서 이미 실어증 환자를 통한 논증과 함께 설명된 바 있었다.

그는 소쉬르의 설명을 빌어 선택은 표면적인 발화가 아니라 기억의 연쇄 속에서 존재하는 잠재적인 집합체이며, 결합은 현재적(in presentia) 관계로써 실제적 연쇄 속에 현존하는 둘 이상 어사(語辭)들의 결합 관계임을 논하면서 주어진 발화는 모든 구성 가능한 부분들의 목록(언어코드)으로부터 선택된 구성 부분들(문장들, 단어들, 음소들)의 결합체이고 이 결합체의 구성요소들은 일종의 인접상태에 있다고 했다. 또 선택의 대체군(代替群)을 이루는 기호들은 유사성,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동의어로서의 등가성 혹은 반의어로서의 공통성을 공유하는 유사성에 의해 연관을 맺고 있다고 설명한다.⁷⁾

실어증 환자를 조사해본 결과 수많은 실어증도 선택(대치) 기능의 손상과 결합(조합) 기능의 손상 등 둘로 나눌 수 있었고 전자는 유사성 관계가 허물어진, 메타언어적 작용의 손상이요, 후자는 인접성 관계가 허물어진 언어단위의 계층성 능력 유지에 대한 손상으로 판단되었다. 은유는 유사성 장애에서 서툴고, 환유는 인접성 장애에서 서툴다. 이렇게 해서,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선택은 은유의 원리이며 인접성에 의한 결합은 환유의 원리라는 사실이 증명된다. 따라서 모든 수사학상의 문체장치, 예술적 전략은 은유와 환유에 수렴되며 은유와 환유는 모든 새롭고 심미적인 체험을 기왕의 언어로 적절하고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원리의 두 축이라는 것이다.⁹⁾

선택과 결합의 구별은 소쉬르가 말하는 랑그와 빠롤의 구별에 대응하고, 나아가 계열체(paradigm)와 통합체(syntagm), 약호(code)와 전언(message)의 구

7) Tzvetan Todorov, 신진, 윤여복 역, 『상징과 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1987), p. 27. 참조.

8) Roman Jakobson, op. cit. pp. 99.

9) Ibid. pp. 100-114. 참조.

별에 대응한다.¹⁰⁾

이 체계는 소쉬르에 의해 이론적 가설로 주장되어온 언어의 양면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실어증 환자에게서 찾아낸 점, 지금까지 소홀히 취급되던 환유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실제의 적용에 있어 환유와 은유의 구분, 그 둘과 기타 다른 수사법과의 구별이 모호하고, 나아가 수사적 어법 전반에 관한 세밀한 탐구와 자리매김을 요하는 등 비판을 받기도 한다.¹¹⁾ 무엇보다 야콥슨의 시적 기능에는 인식적 요소들, 즉 언어표현이 선택하거나 명명하는 실체들, 사건들의 속성이나 특징, 위치, 관계 등의 요소들이 개입할 여지를 둘 수 없고 그의 실제 시 분석 역시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한다. 실제의 언술은 언어화를 넘어서는 여러 내용들을 갖고 있으며 그 내용들은 언어표현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땅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식적 내용으로부터 언어의 독립성을 고집하는 소쉬르의 구조주의나 야콥슨의 프라그 학파의 언어 기호학적 이론은 객관성 추구라는 구호 아래 언어 표현과 내용의 관계성을 부정한다.¹²⁾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때, 우리는 우선 야콥슨의 은유, 환유 즉 시적 기능의 체계가 의외로 명료하지 못하다는 점과 기호화되지 않은 것은 이해불능이라는 언어주의적 입장으로 하여 그것이 문학을 향할 때는 더욱 불명료하고 편협한 과학에 머물고 마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말대로 선택과 결합은 언어의 이중적 특성이요, 어떤 기호이든 두 양식의 배합에서 생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주의자로서의 언어관이 지 그 둘이 언어 표현 밖의 인식적 내용을 원활히 담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언어는 언어에 의해 생성되는 면도 없진 않지만 언어는 언어 밖의 것을 전이(transfer)하기 위해 생성되는 선천적인 비유들인 것이다.

야콥슨은 그의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 어린이들에게 오두막집(hut)이란 단어

10) P. Lodge, 『The Modes of Mordern Writing』, (Edward Arns'd, 1977), p. 74.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94), 196쪽

11) Seto Ken-ichi, 『Metonymy and the Cognitive triangle』, 정원용, 『은유와 환유』, (신지서원, 1999. 2쇄), p. 155.

12) 같은책, pp. 162-3.

로 자극을 주고 그 단어에서 생각나는 첫 단어를 말하라고 했다.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한 것이다.¹³⁾ 의미상 유사성(혹은 대조)으로 연결된 은유적인 반응으로 분류된 것에는 오두막집(hut, 동의반복), 통나무집(cabin, 동의어), 초옥(hovel, 동의어), 궁전(palace, 반의어), 짐승굴(den, 은유), 은신처(burrow, 은유) 등이다.

야콥슨이 위의 여섯 단어를 모두 은유적 반응으로 여기면서도 짐승굴, 은신처 등 두 단어에만 은유라고 토를 단 것은 그 두 단어만이 전통적인 수사학에서의 은유로 취급된다는 뜻에서라 생각된다. 아무튼 위의 여섯 단어는 모두 유사성에 의한 은유라기 보다는 거주지(居住地)란 개념 내의 구성원들이라 생각된다. 대체로 상호간 환유, 제유의 관계가 성립된다 할 수 있다. 이런데서 그의 양극론의 불명료성이 지적되는 것이다.¹⁴⁾

그의 말대로 그의 은유와 환유가 시적 기능의 양 축이요, 시적 기능이 시적 언술의 주도적 자질이라 하더라도 언어적 자극에 대한 언어적 반응 자체를 시적 자질로 직결시키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궁전'의 경우를 은유적 반응으로 다루는 것은 언술의 현장적 구체성을 외면한 언어주의적 관념성을 웅변한다 할 것이다. 그는 궁전이란 반응에 대조(contrast)라는 사족을 달기도 했는데 이는 그의 은유가 그야말로 랑그 차원의 문법적이고 위치적인 선택과 대치에서 오는 언어주의적 발상에 뿌리를 둔 탓이라 할 수밖에 없다. 오두막에 대한 궁전이라는 반응은 전통적 수사(修辭)의 용어로는 과장(hyperbol)이라 할 만한 경우도 있겠지만¹⁵⁾ 야콥슨의 시학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이러니나 역설 등의 범주에서 다루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오두막집을 궁전이라 할 때, 그 언어적 반응은 오두막과 궁전의 유사성을 목표로 발생된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모순과 대조에서 더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오두막집을 궁전으로 과장했다 할 수도 있지만 자조적(自嘲的)인 한탄을 할 때나 마음먹기에 따른 삶의 행복을 말할 경우, 청빈(淸貧)의 여유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경우, 오두막집을 궁전으로 의도적인 반어나 역설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과장도, 역설도

13) Jacobson, p,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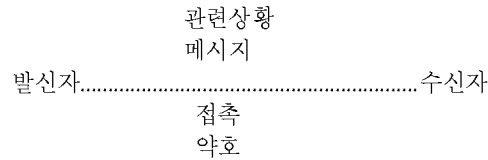
14) 정원용, 앞의책, 159 쪽.

15) 같은책, 168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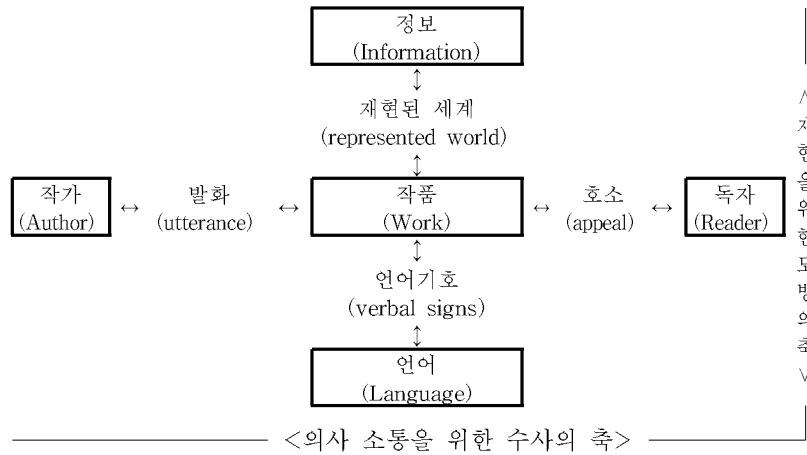
넓은 의미의 아이러니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기도 하려니와 이 작은 예 하나도 시적 기능이 언어적 자극과 반응에서 생산되기도 하지만 상징적 표현과 해석 사이의 상황에 따른 창조적 인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겠다.

야콥슨의 언어의 6개 기본 기능과 헤르나디의 문학작품의 산출과 전달에 관한 도식을 대비해 보면 문학과 언어학적 관점의 차이가 확연해 진다.

언술행위의 6개 요소¹⁶⁾



문학작품의 구성요소¹⁷⁾



16) Jacobson, op. cit. p. 66.

17) Poul Herenady, 『Literary Theory: A Compass for Critics, Critical Inquiry』, 尹石山, 『현대시학』, (세미,1996), 94 쪽 재인용.

야콥슨의 6요소는 어디까지나 언어로 현재화된, 텍스트 내부의 언어에 집중하고 있다.

헤르나디의 도식에 비하면 야콥슨의 6요소는 작품(work)과 언어기호(verbal signs)와 언어적 자원으로서의 언어(language)에 관심이 모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6요소 중 발신자, 관련상황, 수신자도 작품내에서 언어분석을 통한 객관화가 가능한 헤르나디의 발화(utterance)와, 재현된 세계(represented world), 그리고 호소(appeal)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재현되지 않은 언어밖의 정보와 작품내의 화자나 내포독자가 아닌, 작가와 독자가 공유하는 인식적이고 체험적인 내용은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자는 텍스트의 화자와 내포 독자를 관찰하면서 작가의 진의(眞意)를 찾는다. 그는 결코 화자를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화자를 설정한 작가의 의도를 알고자 한다. 그것이 시적 언술에 대한 독자의 해석이요, 감상이다. 작가도 그런 독자를 향해 그의 창조적 언술을 전개한다. 야콥슨에 의하면 시학이란 일반적 언술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특히 시에서 나타나는 시적 기능에 대한 언어학적 탐구이고, 시적 기능이란 언어 생성의 기본 축인 선택과 결합, 은유와 환유라 하거니와 그것으로 창조적 산물인 문학, 특히 시의 주도적 원리를 대신하기엔 해석의 잉여분이 너무 크게 남을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리파테르가 야콥슨의 시학은 시에 나타나는 문법적 형상의 규명에 열중한 나머지 그 시의 문법 외 어떠한 것도 더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하고¹⁸⁾, 시와 문법의 무관련성(irrelevance of grammar)을 강조한 것도¹⁹⁾ 야콥슨의 언어주의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시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문학은 독자와의 소통 과정이 중요한 인식적 내용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²⁰⁾ 이는 비단 문학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18) Michael Riffaterre, 「Describing poetic structures: Two Approaches to Baudelaire's Les Chats」. 1966, p.213. 신문수 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89), p.187.

19) 같은책, 186 쪽.

20) 같은책, 182 쪽 이하 '회상' 참조. 야콥슨은 리파테르의 비판을 재비판하고 있으나 야콥슨의 시 분석 논문들을 볼 때 거의 음성적 형태적 문법적 분석에 일관하고 있어 리파테르의 비판이 오히려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하겠다.

2. 실제 적용상의 한계

야콥슨의 은유, 환유 양극론은 실제 시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낸다.

그가 분석한 블레이크의 유아의 서러움(infant sorrow)이란 시의 인용부분을 보자

엄마는 신음하였다! 아빠는 눈물을 흘렸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로 나는 뛰쳐나왔다
무력하게, 발가벗고, 고소성을 지르며
구름 속에 숨은 한 악마처럼.

아빠의 손아귀에서 발버둥치면서
강보에 싸여 버둥대면서
움직이고 지친 나머지 나는
엄마의 젖을 빼는 것이 제일이라 생각하였다.²¹⁾

야콥슨은 이 시의 압운과 운율 분석, 문법적 패턴 분석에 시종일관한다. 두 단어의 동일한 형태론적 범주, 두 개의 엄밀한 대칭절, 유사한 문법적 범주 등등이다. 시적 기능을 주도한다는 은유, 환유론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²²⁾ 이 시의 시적 전략은 주체적인 사고력도 행동능력도 없는 영아가 출생시에 부모의 모습과 스스로의 모습을 알아보는가 하면 아빠의 손에서 발버둥쳤는지 엄마의 젖빨기를 제일이라 여겼는지 하는 등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몸짓을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에 의한 것인 양 모순되게 진술한 데 있다. 또 독자는 그 모순된 언술과 작가의 실제 의미--출산의 고통과 신비로운 새 생명력, 안식처로서의 모성 사이의 긴장감을 즐기게 된다. 영아의 탄생이라는 상황과 표면적 진술의 모순을 용인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적 긴장을 설명하지 못한 야콥슨은 이 시의 핵심적 언술 전략을 비켜가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야콥슨은 그의 대표적인 논문, '언어학과 시학'에서 어휘적인 비유가 없을 경

21) 같은책, 319쪽. 번역시이지만 시의 예술적 특성은 드러난다. 원문은 본 번역서 참조.

22) 같은책, 319-330 쪽 참조.

우에도 문법적 차원의 화려한 비유와 문체가 이를 보충하는 시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시의 문법에 대해서는 문학 비평가나 언어학자들이 모르거나 무시해왔지만 실제에 있어 창작가들은 이를 능란하게 구사해왔다고 한다. 그 예로 제시한 셰익스피어 희곡 속 안토니우스의 연설, 즉 시저를 죽이고는 시저의 야망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스스로를 변호한 브루터스를 청중 앞에서 비판한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분석한다. 하지만 실제 시적 연설의 핵심의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결한 브루터스는
여러분께 시저는 야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루터스는 공명정대한 분이니까요,
그러나 브루터스는 그가 야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루터스는 공명정대한 분입니다.
그런데 브루터스는 그가 야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루터스는 공명정대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브루터스는 그가 야심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녕, 그는 공명정대한 분입니다.²³⁾

야콥슨은 안토니우스의 연설을 계속 인용하면서 둔호법, 직유법, 어원적 은유, 환유 등의 용어를 적용해보지만 시적 연설의 주도적 원리 제시에는 실패한 듯하다. 극시와 같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접촉이 강화된 상황에서의 시적 기능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공유하는 상황적 맥락을 바탕으로 하는 작가와 독자 사이의 강화된 접촉,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외견상의 모순된 언어 표현에서 곧잘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 연설의 시적 기능의 가장 중요한 장치가 브루터스를 길어로는 공명정대하다고 찬양하지만 그 반복 과정에서 실제로는 비꼬고 비판하고 있는 안토니우스를 발견하고 그 2중성의 극적 효과에 짓는 데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야콥슨의 실어증 환자 관찰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야콥슨에 의하면 유사성 장애(similarity disorder)의 환자는 어떤 단어를 그것의 동의어나 우회적 표현, 이음이의어(heteronym) 등으로 바꿔 말하지 못한

23) 같은책, 85 쪽 참조.

다. 메타언어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개 언어 사용의 능력을 상실하여 특정 방언에만 집착하는 등은 이 장애의 징후적 표현이라고 한다.²⁴⁾ 인접성 장애(contiguity disorder)인 경우, 낱말을 더 이상의 단위로 형성시키는 구문규칙을 상실하여 필경은 문장을 낱말더미로 퇴화시키고 만다고 한다.²⁵⁾ 이들을 반드시 유사성 장애, 인접성 장애만으로 볼 수 있을까?

언어의 사용에 있어 특정 방언에 고착하는 현상은 언술의 상대와 시간, 장소, 태도 등 상황소(deixis)를 인식할 능력의 장애에서 오는 언어장애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인접성 장애의 무문법성(agramatism)도 마찬가지이다. 그 역시 상황소 인식력 장애로 인한 언어장애와 구분될 수 없을 것이다. 언술 상황의 파악이 되지 않을 때, 유사성 장애는 물론 인접성 장애가 함께 일어날 수 있음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이는 선택과 결합이라는 구조주의적 언어관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언어 생성의 원리를 선택과 결합, 둘에 한정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언술 현장, 살아있는 언어 표현의 경우 상황적 맥락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구체적인 언어 표현 어느 것도 상황적 맥락을 벗어나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성(詩性)의 주도적 자질이라는 시적 기능에 있어 은유와 환유라는 두 축은 우선 시적 언술의 상황적 맥락을 돌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작가와 독자의 접촉성을 바탕으로 언어가 생성되기도 하고 은밀한 모의와도 같은 시적 언술의 비합리성, 모순성도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4) Roman Jakobson, op. cit. p. 104.

25) ibid. p.106.

Ⅲ. 차유(transphor)

1. 차유(差喻)의 성립

비유적 언어는 그 서술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의미하지 않는다. 비유적 언어는 고의적으로 문자 자체의 축어적(literal) 용도를 저해한다. 이 저해(interference)는 전이, 이월의 형식을 취하며 그래서 비유는 새롭거나 넓거나 특수하거나 보다 더 정확한 의의를 달성한다.²⁶⁾

비유적인 언어란 어떤 특수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거나 표현하고자 할 때, 직접 진술하지 않고 무엇에 대신 빗대어 말하는 방법이다. 리차즈의 용어를 빌면 주지(tenor)를 표현하기 위하여 대신 매체(vehicle)를 드는 것이다. 미지(未知)의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이미 언중들이 알고 있는 언어를 이용하되, 기지(既知)의 언어에 새로운 의의를 부여하거나 그 의미를 굴절, 변화시켜 매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전이(transfer)라 했고 이는 아무나 행할 수 없는 천재의 표시라 했다.

옛부터 무척 다양한 비유법이 쓰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미나 형식이 일상 표준어법에서 벗어난다면 일단 비유법의 테두리에 넣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보통 비유법은 두 가지 양식으로 나누기도 한다. <의미에 따른 비유>와 <형식에 따른 비유>가 그것이다. 전자는 은유, 직유, 환유, 제유, 반어, 역설, 상징, 우화, 과장법, 의인법 등이고 후자는 병치법, 도치법, 대조법, 점층법 따위이다.²⁷⁾ 학자에 따라 수십 종에서부터 일백 수십 종에 이르기도 한다.

일찌기 보시우스(Gerardus Joanne Vossius)는 종(種)들이 장르에 관계하는 것처럼 모든 비유들이 은유, 환유, 제유 그리고 아이러니 등 4개의 원칙에 관계되는 계급체계를 제의한 바 있다. 비유의 네 가지 축을 제시한 셈이다. 그 뒤에 점차 아이러니는 표현상의 문체(다른 말로 假비유 pseudo-trope)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러시아 형식주의자들, 특히 야콥슨에 이르러 환유, 은유의 양극론이 확고히 자리잡게 된 것이다.²⁸⁾

26) Terence Hawkes, 『Metaphor』, (Methuen & co Ltd; London, 1977), p. 8.

27) 김옥동, 앞의책, 35-36 쪽.

28) Gerard Genette, 앞의글, 김현 편, 앞의책t. 123-4 쪽.

이 양극론은 급기야 모든 비유를 은유, 하나의 극으로 몰리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여타 문체들, 예술적 전략의 다양성을 외면하고 은유를 비유와의 동의어로, 유일한 비유로 떠받드는 위험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라르 주네트는 모든 비유는 어떤 치환에 의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주지와 매체 두 용어 사이에 등가관계가 성립된다. 그렇게 본다면 모두 은유 하나로 통할 수도 있다고 하고 일반적인 다른 수사학을 청산치 말라고 경고한다.²⁹⁾

은유 유일 비유론까지 가지 않더라도 은유, 환유 양극론도 발신자, 수신자 사이의 인식 내용을 간과하기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네 가지 비유 또는 문체의 축에서 잠시 축출된 상태에 있는 아이러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예술에 있어 언어적 원리의 한 축이 되며, 2차적 언어에 있어 주요한 시적 기능의 한 축이 됨은 물론 극시 또는 극문학과 같이 상황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는, 작가와 독자 사이의 원활한 접촉을 전제로 하는 예술에서는 고의로 왜곡되고 모순된 표현을 내세워 시적 기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이다.

아이러니의 본질적 특성이라면 표면적인 언어와 내면적인 의미, 해석의 모호함과 투명함 등 양면을 대조적으로 지닌다. 외양과 실제의 대조로써, 눈앞에 현실을 드러내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을 말한다. 즉 현상과 실제의 대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독자들도 자신들의 내부에 그런 모순과 부조화가 있음을 자각한다.³⁰⁾ 해방감, 이탈감, 자유, 천연스러움, 무감정, 가벼움, 놀이, 세련 등 복합적 감정을 야기한다.³¹⁾

하편, Freud에 의하면 꿈의 구조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문제는 꿈에서 나타난 상징과 시간적인 연쇄가 인접성(프로이드의 환유적 대치와 제유적 응축)에 근거한 것인지 유사성(프로이드의 동일성과 상징)에 근거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야콥슨은 말한다. 이는 프로이드의 원본과는 다르다. 프로이드는 동일시를 응축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라캉(Lacan)은 응축이 은

29) 같은책, 115 쪽.

30) D. C. Mueck, 문상득 역 『아이러니』, (서울대 출판부, 1986), p.15, p.19, p.23, p.32 등.

31) 같은책, p.60.

유, 전치(displacement)는 환유적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다.

프로이드는 꿈의 분석에서 꿈의 작용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요인을 찾아내었는데 응축(condensation), 대치(displacement), 상징(symbolism), 모순(contradiction)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야콥슨은 앞의 세 개만 이용하고 한 개는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프로이드 체계 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범주로 대치했다.³²⁾

그렇다면 프로이드가 말한 꿈의 요인 중 모순은 언술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꿈 해석은 거꾸로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 모순 역시 중요한 언어 상징의 요소가 아닌가 한다.³³⁾ 성급한 말 같지만 이는 전통적 수사법상의 아이러니, 또는 역설과 관계되는 것이리라.

이제는 은유, 환유 외 또 하나 언어 생성의 원리이자 시적 기능의 또 하나의 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야콥슨의 시적 언술 분석이 시적 언술을 언어적 반응으로 환원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지적한 바, 이 세 번째 시적 기능의 축은 언술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언어 형성의 세 원리중 하나라 생각된다. 전통적 수사법상의 아이러니류(類)를 대표로 하는 이 언술의 원리를 필자는 차유(差喻, transphore)라 부르기를 제안한다.

차유는 은유와 환유에 대비되며, 문자 그대로 차이성의 비유란 의미이다.³⁴⁾ 은유가 유사성에 의한 대치(substitution)를, 환유가 인접성에 의한 연결(contexture)을 지향한다면, 차유는 차이성에 의한 긴장(tension)을 지향한다.

언어 표현이 실제의 의미와 간극이 있는 경우와 언어표현 자체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전자는 아이러니 후자는 역설로 구분하거나와 그러한 간극과 부조리함은 상황적 맥락에 의해 이해된다. 전통적 문체 용어상 아이러

32) Seto ken-ichi 등, 정원용, 앞의 책. p. 160.

33) 대변을 짊어지고 집으로 오는 꿈은 부자가 된다는 등 일반 현실논리와 모순되는 꿈 해몽이 많다. 이공선 편역, 『꿈 판단과 해몽』, (명문당, 1977), 280 쪽. 이 외에도 수많은데 특히 동양의 꿈 해몽에는 일상과 모순된 해몽이 더 많다.

34) 은유(metaphor)의 어원적 의미는 너머로(meta)와 운반하다(pherein) 즉 제2의 대상을 제1의 대상으로 보이게 서술한다는 뜻이고, 환유(metonymy)는 명칭 변경의 의미이다. 차유 표기 transphore는 어떤 대상을 바꾸어, 원래의 것과는 상이하게 나타낸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름지은 조어이다.

니류와 같은 표현에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지만 아이러니라 칭하기 곤란한 것은 아이러니가 역설과도 혼동되어 쓰이는 등 그 개념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³⁵⁾ 무엇보다 비유를 위한 수사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언어, 심지어 은유, 환유 속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함께 작용하는 언어적 원리라는 점에 있다.

어떠한 언어의 선택도, 결합도 그 상황적 맥락을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의 의미가 완벽히 구현되는 언어도 없다. 하나의 기의(signifie)에 대한 기표(signifiant)가 상황에 따라 수없이 존재하듯이, 하나의 랑그에 무수한 빠롤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내용과 표현 사이의 끝없는 차이를 메우려는 시도도 또 다른 새로운 차이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데에 차유가 모든 언어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이유가 된다. 시적 언술의 의미와 표현 사이의 모순, 부조리, 차이성 등이 청자에 의해 동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차유의 시적 기능은 현대시의 대표적인 언술 양식으로 보아 무방하다 생각된다. 차유는 모든 언술에 편재하며 은유, 환유와 함께 메시지를 더 적절히, 더 섬세하고 아름답게 하는 시적 기능의 한 극이다.

차유의 2차적 언어, 즉 시적 기능의 용도는 크게 아이러니와 역설 등 둘로 나누어진다. 둘 다 실제의 의미와는 다른, 모순된 표현으로 대립적 요소를 내포한다는 점, 상황적 맥락 이해가 언술 이해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그 차이가 없지는 않다. 아이러니의 경우 언어 표현 그 자체에는 모순이 없으나 언어표현과 그 지시대상, 화자, 청자 사이에서 차이성, 상반성이 부각된다. 역설의 경우는 진술 그 자체에 모순이 나타난다. 한용운의 ‘님의 沈黙’의 한 행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에서와 같이 표면적 모순과 실제의 의미 사이의 긴장감이 언술의 효과를 더 하는 것이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35) 상호 모순되는 경험요소들이 야기하는 의미론적 긴장을 두고 I. A. 리차즈는 아이러니로, C. 브룩스는 그의 대표적 저서 잘 빛어진 향아리에서 뚜렷한 개념 규정 없이 역설이란 말을 사용했다. 혼동되어 쓰일 만한 것도 공통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려 갔구나.
정지용, <琉璃窓 1>에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김소월, <진달래꽃>에서

<유리창1>의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이른바 모순어법(oxymoron)이다. ‘고운 폐혈관’,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등도 마찬가지이다. 모순, 불합리한 언어를 내세워 어떤 상황의 단면을 나타낸다 역시 독자와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낱 알 수 없는 언어몽치에 지나지 않게 된다. 김영랑의 ‘찬란한 슬픔의 봄’이나 유치환 ‘소리 없는 아우성’ 역시 모순어법이다. 모순어법은 언어적 역설(verbal paradox)이라 하기도 하거니와 모순의 차유(transphor of contradictin)라 하는 것이 용어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 역설은 언어적 아이러니에 대비될 수 있다. 언어적 아이러니는 주로 반어(反語)라 번역되거니와, 단어의 문자적 의미와는 반대되는 함축을 말하는 방법, 어떤 것을 말하면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실제 의미에 대해 상반성 또는 차이성이란 표현상의 특성을 갖는 이런 언술을 차이의 차유(transphor of difference)라 부를 만하다. 윗 시의 마지막 행이 날아가지 않고 마음 깊이 남은 아이를 잊기 위한 것이라면 언어적 아이러니, 차이의 차유에 의한 표현이다. 과장진술(overstatement), 낮춘진술(understatement), 편(pun) 등과 언어적 아이러니는 차이의 차유에 든다. 차이의 차유와 모순의 차유는 언어적 차유(verbal transphor)의 하위 개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상황적 역설(situational paradox)은 언어적인 것에 대해 시작품 전체의 상황이 역설적 구조를 갖는다는 양적인 면의 차이가 있다. 전반적인 상황이 불합리하거나 모순되어 그 이면의 진실을 감싸고 있다. 하지만 상황적 역설은 상황적 아이러니와 실제에 있어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 상황이 불합리하면서 모순되기 때문이다. 갖지만 보내지 않았다는 모순된 표현으로 절대적인 사랑의 정황을 노래한 한용운의 시<님의 침묵>이나 떠나는 님에게 꽃까지 뿌리

며 축복하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은 상황적인 역설 또는 아이러니를 보인다 할 수 있다. 이들을 상황적 차유(situational transphor)라 같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정지용의 <유리창.1>의 인용부분도 상황적인 차유를 보인다. 이 시는 시인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달랜 시로 알려져 있거니와 자식을 먼저 보낸,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외로운 황홀한', '고운 폐혈관',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등 불합리하고 모순된 언어적 차유를 반복하면서 애착과 그리움을 대조적인 상황을 설정, 털어내고 있는 것이다. '외로운 황홀한'과 '고운 폐혈관'은 모순의 차유, 나머지는 차이의 차유이다.

<진달래꽃>의 경우, 나 보기가 싫어서 님이 떠날 때에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 모순된 표현이다. 실제로 화자는 엄청난 슬픔과 두려움에 쌓여 있다. '죽어도'라는 부사어와 '눈물 아니 흘리다'라는 표준의 어순을 '아니 눈물 흘리다'로 전도시킨 데서 그 슬픔의 곡진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모순의 차유이다. 작가는 모순된 언술과 실제의 진실 사이의 모순율로 독자들의 더 큰 공감을 이끄는 것이다. 이 부분은 차이의 차유로 읽을 수도 있다. '아니 눈물 흘리겠다'는 말은 눈물로도 감당 못할 마음을 차이성 있게, 불합리한 마음으로 대신한 것이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한국인이라면 상황적 맥락 파악이 쉬운, 떠나는 모습마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한을 언어적 차유와 상황적 차유로 연출하였다 하겠다.

나는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에몰몰할께요

거울속의나은참나와는反對요마는
 또꽤답았소

이 상, <거울>에서

<거울>은 전체 언술이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 있고 불합리하다. 시인은 시치미 딱 떴고 일견 모자라게 보이는 화자를 통해 스스로의 모순되고 부조리한 삶을 풍자하고 있다. '잘은모르지만',이나 '꽤답았소'의 '꽤'에서는 낮은 진술, 언어적 차유를 볼 수 있다.

차유는 시적 언어의 기본 특질의 하나이다. 1930년대 미국의 브룩스는 시의 언어가 역설의 언어라는 명제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³⁶⁾ 그에 있어 역설과 아이러니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그는 시가 어떤 것보다 차유의 언어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차유는 언어적 차유와 상황적 차유로, 다시 언어적 차유는 차이의 차유와 모순의 차유로, 상황적 차유는 그동안 상황적 아이러니와 역설의 유형 분류 체계에 따라 더 분류될 수 있겠다.

2. 은유, 환유 그리고 제유

시가 원초적인 언어체라고 할 때 그 언어체에는 네 개의 주요한 원형적 문체 (figure)들이 있다. 그것들을 창안의 순서대로 들면 은유, 환유, 제유, 그리고 아이러니 등이라 할 것이다.³⁷⁾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아이러니와 역설은 현대시의 구조적 특질로 널리 인식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시의 대상 자체, 사회적 상황 자체가 근원적으로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둘째, 대립, 모순되는 시적 대상을 단순, 배타적이지 않게, 가급적 포괄적,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시인의 시정신과 상상력이 필연적으로 아이러니나 역설의 방법을 취하게 하는 까닭이라 볼 수 있다.³⁸⁾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36) Cleanth Brooks, 이경수 옮김, 『잘 빚어진 향아리』, (홍성사,1983), 7 쪽.

37) G. B. Vico(1668-1744)의 견해, Roland Barthes, 『옛날의 수사학』, 김현 편, 앞의 책, p.112.

38) 문덕수, 시론,(시문학사, 1996),p. 250.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나
백골이 우는 것이나

윤동주 <또 다른 故郷>에서

윤동주의 저항시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저항시이든 각성(覺醒)의 시이든 그의 시치고 경음, 격음, 마찰음, 음성모음 등이 아마 가장 많이 쓰인, 따라서 매우 강렬하고 거친 인상을 주는 시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음운(音韻)의 선택과 결합을 각각 은유, 환유 그리고 1연과 3연에 비해 부드러운 유성음이 더 쓰이는 2연의 대조적인 음성과 그와 관련되는 의미의 전환에는 차유의 원리가 작동한다 하겠다.

이 시의 연술상 가장 큰 특성은 불합리한 표현에 있고 독자는 그 해석을 위해서 작가가 설정한 詩作의 배경, 상황적 맥락을 좇아 불합리한 표현들을 이해해야 하는 데 있다. 화자와 따로 움직이는 화자의 백골, 우주로 통하는 방, 방 안에서 풍화작용하는 백골, 나와 백골과 아름다운 혼의 분열 이런 등등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언어를 식민지하의 지식 청년으로서 저항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날 밤이란 상황으로 이해하든지, 생활인으로서의 나와, 지조 높은 청년의 행동의지(백골), 그리고 갈등 없는, 또 다른 고향을 꿈꾸는 내 영혼 등 3자의 격렬한 내적 투쟁으로 볼 것인지를 정해야 이 시의 언어적 모순에 내재하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식민지하와 같은 불편한 상황에서의 차유는 그 상황적 맥락 파악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작가 자신의 분열 내지 갈등이 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적으로는 은유의 개입도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백골도 우주로 통하는 어두운 방도 소리처럼 부는 바람도 은유가 주도한다. 차유는 메시지 자체의 문맥이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독자와 공유하는 상황적 맥락에 의하지만 은유의 유추(analogy)는 실세계의 논리로 연결되지 않는다. 비현실적인 연상(association)에 의해 유사성을 찾는다. 백골과 그 주지(主旨), 어둔방과 우주, 바람과 소리 등이 그러하다.

한편, 시적 기능에 있어 인접성은 유사성과 차이성에, 유사성은 차이성과 인접성에 중첩되어 나타난다. 인접성과 유사성은 모두 차이성과 중첩된다. 은유, 환유와 차유 단독으로 작동하는 언어는 없다. 은유, 환유, 차유는 시적 기능의

세 축이요, 문체의 세 원리인 것이다. 어떤 환유도 다소 은유적이이고 차유적이며 어떤 은유도 차유적, 환유적 색채를 띤다.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비밀한 울음

한번만의 어느 날의
아픈 피 흘림
박두진, <꽃>에서

꽃이보이지않는다.꽃이향기롭다.향기가滿開한다.나는거기墓穴을판다.묘혈
도보이지않는다.보이지않는묘혈속에나는들어앉는다.
이상, <絶壁>에서

유추(analogy)란 한 대상이 다른 대상과 의미나 형태나 특징에 있어 서로 유사하리라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다. 또는 알려진 언어를 통해 새로운 언어 표현을 하면서 둘 사이의 공통성을 추정하는 것이다. 박두진 <꽃>은 개화(開花)의 신비로움과 생명탄생의 진통을 여러 매체를 통해 유추한다. 전형적인 은유의 연속이다. 이상의 <절벽>은 모순투성이의 연술이다. 내면의 모순을 상징적인 언어의 연속으로 기술한다. 야콥슨에 의하면 꽃, 향기, 묘혈 등은 선택에 의한 은유인 셈이다.

은유는 의미(sense)와 의미 사이, 실체(entity)와 실체 사이, 특히 의미와 실체사이에서 차이 속의 유사성을 보게 한다. 즉, 인간의 추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에 등치시킴으로써 인식적 진전을 기하는 것이다. 이 진전이 차이성 속의 유사성을 통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이가 없는 유사성이란 인식의 진전이 없는 답보요, 비유어가 아닌 동일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유에는 환유뿐 아니라 차유가 중첩된다.

어쨌든 두 편의 시 모두 상식 밖의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절벽>과 같은 기존의 의미와 어법의 과감한 파괴는 극단적인 상황적 차유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그 불합리하고 모순된 언어세계에는 개인적 절망감도 절망감이려니와 초현실주의라는 문화적 맥락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연술에는 극단적인 은유

서 연상에 의한 유사성으로 등가성을 획득한다면 환유는 이와 같이 실세계적 논리에 의해 결합된다. 다른 예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산’과 ‘들’은 특히 제유라 구분할 수 있다. 그 둘이 차창 밖 세상을 대신하듯이 제유는 부분이 전체를 전체가 부분을 표현하는 것, 즉 종(種)과 유(類)의 교차(交叉)이며 따라서 범주적 포괄성에 기인한다. 야콥슨이 제유를 환유에 포함시켰듯 제유도 현실적 논리에 의한 인접적 결속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나, 언술에 있어 범주화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면 제유도 언술 원리의 제 4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목월의 <월색>은 언어가 평이하지만 상황적 맥락이 이해되지 않고는 문법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시이다. 시적 언어라기보다 일상적 언어(everyday language)에 가깝다. 애매모호한 대신 치밀하게 조직되는 시적(감정적) 언어와 사람들에서 편차 없는 해석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인 언어가 각각 은유와 환유의 원리에 주로 따른다면 차유는 일상어의 시적 기능을 대표한다. 화자와 청자가 바로 상황적 맥락을 공유하고있어 구차한 문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젊은 시골 색씨의 밤나들이, 낭군 마중 가기라도 하는 길에 동네 어른과 맞닥뜨렸다. 동네 어른 보기에 멀찌감치서 보기엔 평범한 흰 고무신이던 것이 가까이서 보니 옥색 고무신, 고무신으로 이어지는 환유가 시골 새댁의 조심스런 발걸음을 대신하고 흰색과 옥색의 대비가 좁혀지는 거리감을 느끼게도 하면서 소박한 시골 새댁의 애뜻한 정을 나누어 갖게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애’라는 모순어법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우리나라 시골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아마 이 시의 감상은 어려울 것이다.

유사성에 기초한 것이 은유이고 차이성에 기초한 것이 차유이고 인접성에 기초한 것이 환유이며 범주적 포괄성에 기인한 것이 제유이다. 이들은 인간 개념조직의 양식이며 일상언어에 편재하는 현상이다. 은유가 직관에 의한 시적 언술이고 환유가 인습적이고 세습적인 지식과 문화에 의한 산문적 언술이라면 차유는 극적 언술이고 일상의 살아있는 언어생활을 지배하는 시적 기능을 한다.

유사성, 차이성, 인접성 이 셋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동화된 세계를

벗어나려는 인간 정신의 세 가지 통로라 할 것이다.

IV. 결 론

로만 야콥슨을 중심으로 한 은유, 환유의 이론이 활발하게 소개되면서 한국에서도 언어의 시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은유와 환유는 문학이나 언어학뿐 아니라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받아들여도 좋은, 보편적인 지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은유, 환유라는 두 축에 관한 이론은 논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환유와 은유의 구분, 그 둘과 기타 다른 수사법과의 구별이 모호하고, 나아가 수사적 어법 전반에 관한 세밀한 탐구와 자리매김을 요하는 등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시적 원리의 단순화, 언어과학화에 따르는 한계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과학 수립에만 연연하는, 언어 밖의 상황적 맥락(context of situation)의 의의를 간과하는 데서 오는, 언어적 형식주의의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실제의 언술은 언어화를 넘어서는 여러 내용들을 갖고 있으며 그 내용들은 언어표현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땅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성(詩性)의 주도적 자질이라는 시적 기능에 있어 은유, 환유의 양극론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언술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차유(差喻, transphor)’란 원리의 극점을 하나 더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차유는 은유와 환유에 대비되며, 문자 그대로 차이성의 비유란 의미이다. 은유가 유사성에 의한 대치(substitution)를, 환유가 인접성에 의한 연결(contexture)을 지향한다면, 차유는 차이성에 의한 접촉의 긴장(tension)을 지향한다.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언어와 실제 의미 사이의 역동적이고 극적인 긴장감을 형성하는 차유는 전통적 수사법상의 아이러니류(類)에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아이러니라 부르지 못하는 것은 역설, 낮춘진술, 과장진술 등과 용어상의 혼란이 심한 데다 이는 2차적 기호의 문체를 조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언어적 원리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의 시적 기능에 있어 표현상의 모순성

(contradictoriness), 불합리(absurdity), 차이성(difference) 등을 존재하게 하고, 또 그 해석의 단서가 되기도 하는 세 번째 축인 셈이다.

시적 기능에 있어 인접성은 유사성과 차이성에, 유사성은 차이성과 인접성에 중첩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인접성과 유사성은 모두 차이성과 중첩된다. 은유, 환유와 차유 단독으로 작동하는 언어는 없다. 은유, 환유, 차유는 시적기능의 세 축이요, 문체의 세 원리인 것이다. 어떤 환유도 다소 은유적이이고 차유적이며 어떤 은유도 차유적, 환유적 색채를 띤다.

차유의 유형을 분류하자면 차유는 언어적 차유와 상황적 차유로, 언어적 차유는 닷 차이의 차유와 모순의 차유로, 상황적 차유는 그동안 상황적 아이러니와 역설의 유형 분류 체계에 따라 더 분류될 수 있겠다.

범주적 포괄성에 기인하는 제유를 환유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제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범주화 능력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관해서는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그 문체의 발생 순서를 좇아 은유, 환유, 차유 등 시적 기능의 세 층위에 관하여 직접 간접 밝혀진 결론을 간략히 제시한다.

은유	환유	transphor
계열체	통합체	상황
유사성	인접성	차이성
선택	결합	문맥
연상	실제	상황적 맥락
대치(代置)	연결	접촉
문맥화 결어	선택결어	실어증
창의적	관습적	적극적
서정	서사	극
정서적 용법	과학적 용법	일상적 용법
낭만주의·상징주의	사실주의	풍자·전위

주제어: 은유, 환유, 차유

참고문헌

- 김경린 외 역음, 『한국명시선』, 문예한국사, 1994
- 김 현 편,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1985.
-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1999.9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2
- 김현 편,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1985.
- 문덕수, 『시론』, (시문학사, 1996)
- 신문수 역,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 지성사, 1989
- 신 진, 『우리 시의 상징성 연구』, 동아대 출판부, 1994
- 신 진 편저, 『문체와 문체 연구』, 동아대 출판부, 1998
- 윤석산, 『현대시학』, 새미, 1996.
- 이공선 편역, 『꿈 판단과 해몽』, 명문당, 1977.
-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94.
- 정원용, 『은유와 환유』, 신지서원, 1996.11.
- 정한모 외, 『한국현대시요람』, 박영사 1998. 1.
- 한국기호학회 편, 『은유와 환유』, 문학과 지성사, 1999.7.
- Brooks Cleanth, 『The Well Wrought Urn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5), 이경수 옮김, 『잘 빚어진 항아리』, 홍성사, 1983.
- Erilich Victor, Russia Formalism, 박거용 역,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과 지성사, 1983
- Jakobson Roman, eds. Krystina Pomorska and Stephen Rudy, 『Language in Litera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Lodge P. , 『The Modes of Mordern Writing』 Edward Arns'd, 1977.
- Muskarovsky, Poatics, 김성곤·유인정 공역, 『무카로브스키의 시학』, 현대문학사, 1987.
- Richards I. A.,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London:Routledge and Kegan Paul , 1970.

Roman Jakobson 등, 김태욱 역, 『언어과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성사, 1977.

Hawkes Terence, 『Metaphor』 Methuem & co Ltd: London, 1977.

Todorov Tzvetan, Peter Catherin 영역, 『Symbolis and Interpretation(1982)』 신진, 윤여복 역, 『상징과 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1987

<Abstract>

A Study of the Third Pole of Poetic Function "Transphor"

Shin, Jin

The theory of metaphor and metonymy initiated by Roman Jakobson is widely discussed along with the interests in poetic functions of language in Korea. Metaphor and metonymy are accepted as a universal knowledge in every aspect of culture as well as in literature and linguistics. But it is believed that the theory of two poles of metaphor and metonymy is problematic in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ordinary language, not to men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poems, which is due to the limitation of linguistic formalism defining all the discourse as linguistic system and misunderstanding it as objective science.

In this study, the author emphasizes the fact that in the concrete discourse such as poetic language and ordinary language, the context of situation rather than the internal property of language controls the selection and combination. And the author suggests that we introduce one more endpoint "transphor" to supplement the dynamic and concrete discourse interpretation.

Transphor can be defined as the third principle of poetic function based on the context of situation between the author and the reader, which triggers the contradictoriness, absurdity, and difference in the expression. This principle is similar to irony in the wider meaning, but it is thought to be one of the principles internalized in language along with metaphor and metonymy.

Synecdoche also can be included to make four poles, but this study

suggests the three poles of metaphor, metonymy, and "transphor" as the following table:

metaphor	metonymy	transphor
paradigmes	syntagmes	linguistic situation
similarity	contiguity	difference
selection	combination	context
association	fact	context of situation
substitution	contexture	contact
contextualization lack	selection lack	aphasia
creative	customary	positive
lyric	epic	drama
emotive use	scientific use	every day use
romanticism · symbolism	realism	satire · avant-garde

Key words: metaphor, metonymy, transphor